
2024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전주시의회
사무국

2024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I 추진 개요

- 기간 : 2024년 07. 04(목) ~ 07. 13(토)
- 국가 : 유럽 3개국
(이탈리아 토리노, 스위스 취리히, 독일 프라이부르크)
- 주제
 - ▶ 분산에너지 정책 발굴 현장 탐방
 - ▶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및 자원순환시설 등 건축·도시정책 탐구
- 인원 : 6명(의원 1, 탄소중립지원센터 1, 에너지센터 1, 활동가 3)

2 주요 일정

일차	방문지역	주요 일정	벤치마킹 사항
1일	이탈리아	○ 인천 출발 → 로마도착	
2일	(이탈리아) 로마	○ 이탈리아 전력청 방문	○ REC 개요, 지침, 규제, 구축 및 운영 지원 방안
3일	(이탈리아) 쿠네오	○ CONCERTI 재생 에너지 커뮤니티 미팅	○ 주민주도형 커뮤니티링 유지 방안
4일	(이탈리아) 토리노	○ 공식방문 없음(일요일 휴무)	
5일	(이탈리아) 토리노	○ 토리노공대 에너지 센터 방문 ○ 토리노 상공회의소 방문	○ 인재육성, 기술지원, 구성원 참여방법 ○ 기업의 참여방법과 역할 현황 사례
6일	(스위스) 취리히	○ 그린시티 방문 ○ 취리히 시청사 방문	○ 기업의 참여방법과 역할 현황 사례 ○ 친환경도시재생 정책사례
7일	(스위스) 루체른	○ 에너지슈바이츠	○ 루체른시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8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 보봉마을 ○ 프라이부르크 청사	○ 친환경생태마을 조성 정책 사례 ○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조성 사례
9일	(스위스) 취리히	○ 프라이부르크 → 취리히 ○ 취리히 출발 → 인천	
10일	귀국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목 차

I. 출 장 개 요	1
II. 심사근거 및 절차	2
III. 심 사 자 료	3
- 출장배경 및 목적	3
- 방문시설과 타당성	4
IV. 기대효과	9
V. 국가 소개	12
VI. 출장 일정	17
VII. 출장단 구성	18
VIII. 사전 준비과정	18

2024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방문 목적

- ▶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느 때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 및 주민참여형 분산에너지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장 방문 및 학습으로 지역 내 적용가능한 정책 발굴
- ▶ 친환경 도시정책의 방향,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혁신적인 건축디자인 사례 조사 등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도시계획 적용 가능성 검토
- ▶ 국외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책제도 및 기술 등 선진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른 시사점 확보

I 출장개요

- 기간 : 2024년 07. 04(목) ~ 07. 13(토) / 8박 10일
- 장소 : 유럽(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3개 국가 관련기관 방문
- 주제
 - ▶ 주민참여형 분산에너지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
 - ▶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및 자원순환시설등 친환경 도시정책 탐구
 - ▶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책제도 및 기술 탐구
- 인원 : 1명 (의원)
- 출장경비 : 1인당 5,500천원 (자부담 2,500천원)
 - ▶ 국외여비 지급항목 : 국외항공운임 - 실비
 - ▶ 지급기준(일비·식비·숙박비)

[단위: 1인/USD 1347.50원 / '24. 5. 10. 하나은행 기준]

구분	총계		일비			식비			숙박비		
	\$	원	일수	\$	계	일수	\$	계	일수	\$	계
나	1,986	2,676,135	10	30	300	10	59	590	8	137	1,096

※ 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 국가별 등급 : "나" 등급

○ 출장비용(예산범위 내 지급)

▶ 의원 : 3,000,000원 × 1명 = 3,0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회비(의원국외여비)

○ 출장방법

▶ 직접수행 : 전주시에너지센터,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수행역할 : 항공 및 호텔 예약, 공식 기관방문 섭외, 현지 교통,
보험 가입, 통역·안내 등 전반

※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학계, 기관 등의 전문 활동가들로
구성된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 구성원들의 사전스터디 및
방문기관 선정 등 직접수행을 통한 선진 사례 탐구

▶ 방문기관 선정 : 전주시에너지센터

- 방문 장소 및 주요 벤치마킹 사항, 기관방문 사전협의 등

II 심사근거 및 절차

1 심사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회규칙 제55호, 2023.4.21.)

2 추진계획

○ 출장지 및 테마 선정 : 완료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 : 5. 20(월)

○ 의원공무국외출장 시행 : 7. 04(목) ~ / 비회기중

① 출장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Net Zero)이 전세계적으로 화두 및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음.

* 분산에너지는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에너지

전주시에너지센터,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학계·기관 등의 전문 활동가들로 구성된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 구성원들의 사통한 선진 사례를 탐구하여, 전주시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정책 개발 및 방안을 모색

- 녹색과 생태도시를 기본원칙으로 특화된 복합도시개발 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미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녹색집합건물을 완성해 가고 있는 사례와 환경-에너지-교통 및 민관협력 노하우 등 전주시의 미래 지속가능한 광역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과 사례 경험을 공유

- 도시의 친환경 도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친환경 시설, 친환경 도시계획, 산학연관 협업시스템을 통해 각 도시별 전반적

인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해외 도시들에 대한 실제 사례조사 및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전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상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발전적인 정책개발 방안을 모색

2 방문시설과 타당성

1. 분산에너지 정착 및 운영 사례

○ (이탈리아) 이탈리아 전력청 (Gestore Servizi Energetici)

이탈리아는 재생 가능한 자원 및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EU 및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인센티브 도구 관리를 GSE에 위임함으로써 환경 지속 가능성 촉진 및 저탄소 경제 건설에 투자함
시민, 기업 및 공공 행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부문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을 구현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효율, 검사, 배출권거래, 데이터 및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개요, 지침, 규제, 구축 및 운영 지원 방안을 청취

○ CONCERTI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재생에너지 회원회사와 시장 및 공급자 회의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Fabbrica Digitale) 구축 및 운영사례를 탐구하고,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직접 청취

※ 방문지역 : Bene Vagienna, Magliano Alpi

○ 토리노 공대 에너지센터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으로, 그 전신은 1859년 발렌티노성(Castello del Valentino)에 세워진 기술학교(Scuola di Applicazione per gli Ingegneri)와 1862년 설립된 이탈리아산업박물관(Museo Industriale Italiano)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와 고등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재육성과 기술지원, 구성원 참여방법 등을 청취하고,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에너지센터 관계자와 함께 현재 운영방식과 향후 에너지센터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고, 도입 가능한 전략과 개선점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를 모색하고자 함

2. 친환경 도시정책 사례

○ 스위스 그린시티



스위스 그린시티는 스위스 최초의 탄소제로지구로써, 옛 방적 및 제지공장 부지에 건설되었음

스위스 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 전략 중 하나인 2000Tatt Society의

실현을 위해 8ha의 면적에 주거, 업무, 상업, 호텔, 학교시설 등의 기능으로 구성, 740개의 주거와 약 2,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음
지구 내 모든 건물은 최신의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었고 태양광, 지붕녹화,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탄소중립적인 열과 전기의 공급은 물론, 건물의 배치, 구조, 녹지의 조성, 대중교통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탄소제로 지구로의 개발을 이뤄냄

현재 리노베이션 되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옛 방적공장 건물은 곡물창고에서 도자기공장, 방적공장, 제지공장으로 사용되었고, 취리히에서 가장 큰 산업건물의 자리를 지켜온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2007년 보호 유산으로 등록된 후 현재 콘도미니엄과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전주 시도 도시 재개발, 재건축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층수제한 폐지 규제완화를 골자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인 가운데, 스위스 그린시티 사례를 통해 전주시의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친환경 도시재생을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하고자 함

○ 스위스 루체른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로이스강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지붕이 덮인 목재로 만든 Kapellbrücke 다리는, 성 베드로 예배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1993년 화재로 많은 부분과 수백 년 된 다리 대부분과 함께 파괴되었음에도 목재로 다시 재건축하여 관광명소가 됨.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은 루체른의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리노베이션 방법 등을 탐색.

전주 한옥마을 또한 한옥의 특성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 증대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지역의 사례들을 탐색하여 전주시에 접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독일 프라이부르크(프라이부르크 보봉지구, 탄소중립 시청사)



- 친환경 생태마을 프라이부르크 보봉지구

공동체 문화가 기반이 된 자연친화적인 도시 ‘보봉마을’은 면적 410km², 인구 약 5천500여명(2천500가구)의 도시로, 1992년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마을로서 본격적인 개발 추진됨.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플러스에너지하우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집이 움직이면서 태양에너지를 만드는 헬리오트롭, 3중 창호나 단
열재 등을 사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패시브하우스 등
친환경 에너지 주택 건축함

낙후지역이었던 보봉마을이 신재생에너지 마을로 변신은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이 구성한 포럼을 통해 추
진되어, 추후 보봉시민자치조합으로 발전하는 등 적극적이고 자발
적인 정책의 대표임

- 탄소중립 시청사 ‘Neues Rathaus Freiburg’

여러 장소로 나누어 근무하던 업무공간을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청사를 건설하였고, 단열 및 기밀성 측면에서 패시브 하우
스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공되었고, 건물 지붕과 전면 대부분이 태
양광 모듈로 덮여 있으며, 단열성능을 가진 목재패널을 사용하여,
사옥동과 탁아소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순 배출량 제로의 공공건
물, 순 플러스 에너지표준을 달성한 독일 최초의 공공건물로, 자체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도시 그리드에 공급하고 있음.

1.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실현

○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0’으로 하여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자 우리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관련 교육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음

하지만 다수의 노후 주택, 늘어가는 차량,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실정임

온실가스 배출은 건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시민들의 일상이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탄소중립을 일상화할 수 있음

이처럼 탄소중립의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 주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 모델을 발굴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등 각 영역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한다면,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친환경 건축 및 제로 에너지 건축

○ 유럽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도 일맥상통하며, 공장지대를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설계 등 실천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증가하고 있음
주거단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은 물론, 풍력, 지열과 바이오가

스를 활용하는 사례, 단열과 보온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뛰어난 환기시스템으로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는 패시브하우스 건축사례 등 여러 친환경 도시정책 성공 사례에 대한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전주시 실정에 맞는 친환경 도시계획 및 기후환경 프로젝트의 적용 가능한 실행 전략을 모색하여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전주시의 친환경적 정책 수행과 시민들의 참여가 선행된다면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

3. 분산에너지 확대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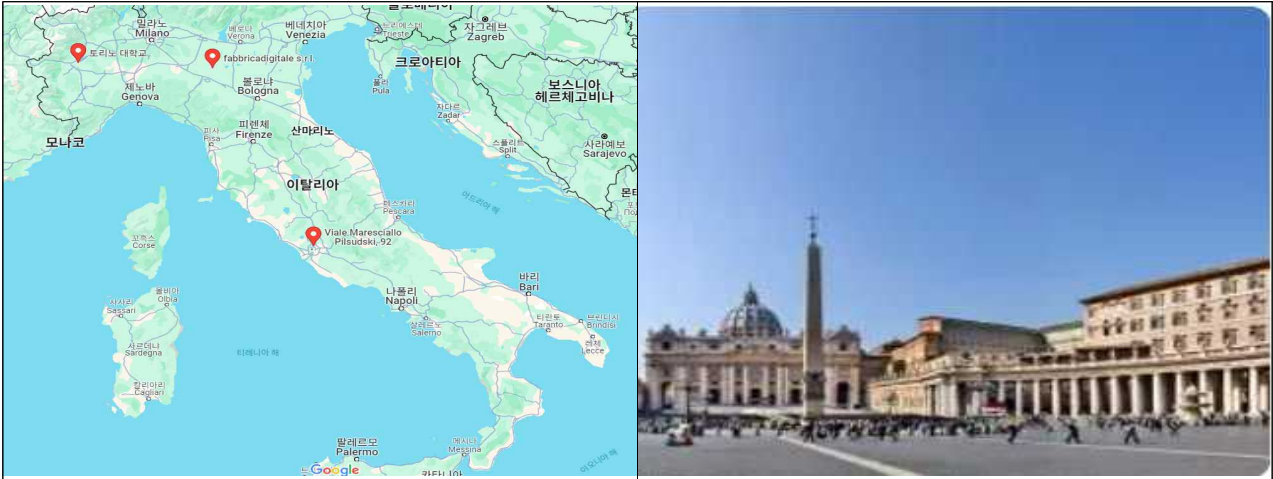
이탈리아는 재생에너지지침 개정('23년 10월)에 맞춰, “재생에너지 공동체 및 자가소비 촉진” 국내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주체의 에너지 생산, 소비, 전력망 운영을 통한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분산형 전력 체계’를 두고 기존 전력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정부는 전력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등의 다양한 전력시장 개선을 본격화한다고 밝힘 이에,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등으로 산업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많은 기업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신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수익모델 다각화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



그림 1 | 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려면 해당 지역의 에너지, 전력계통, ICT, 금융 등이 모두 연계되어야 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에 선진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음을 것임을 기대함

한편, 전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시민주도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인 햇빛발전소를 전주시 내 유희부지 6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337명이 참여하며 연간 809,000여k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민관협력 신재생에너지 모델이 향후 분산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탈리아의 시민참여(주도)의 분산에너지 사례 조사를 통해 분산에너지 확산에 있어 지자체와 시민참여의 역할과 방향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



○ 기본현황

- 남유럽에 위치한 단일 의회 공화국이다. 이탈리아는 본토와 지중해의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시칠리아 및 사르데냐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 알프스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주변 바다로는 동쪽의 아드리아해, 남쪽의 이오니아해, 서쪽의 티레니아해와 리구리아해가 있다. 이탈리아의 영토 안쪽에는 위요지 국가인 산마리노와 바티칸 시국이 접하여 있으며, 스위스 영토 안쪽에 이탈리아의 월경지 영토인 캄피오네디탈리아가 있다. 국토 면적은 301,340km²이며, 온대 기후대에 속한다. 인구는 60,200,000여 명으로, 유럽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고, 전 세계 기준으로 23위이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로마를 비롯하여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 피렌체, 토리노, 베네치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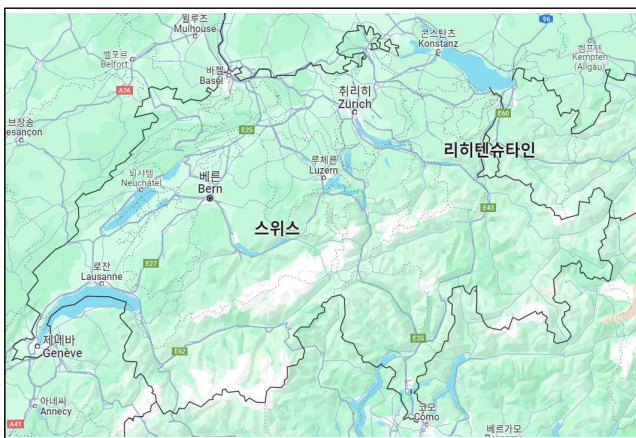
○ 경제 · 외교

- 이코노미스트지 조사에서 삶의 질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 나라는

높은 생활 수준을 구가하며, 2010년 인간 개발 지수는 24위였다. G7 과 G20 소속이며, 2011년 기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은 세계 8위이다. 이탈리아는 오늘날 유럽 연합의 창립 회원국으로, 1957년 로마 조약 이 체결된 나라이기도 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원년 회원국이다. 그 밖에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와 세계 무역 기구(WTO), 유럽 평의회, 서유럽 연합의 일원이다. 이탈리아의 군비 지출은 세계 8위이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 공유에 참여하고 있다.

- 식량 농업 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 식량 계획(WFP)의 본부가 이 곳에 위치한다.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더불어 유럽의 정치, 사회, 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요 지역 강국 이기도 하다. 이 나라는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13] 세계화된 나라이며, 2009년 국가 브랜드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 였다. 또 이탈리아의 기대 수명은 뉴질랜드와 버뮤다 다음 세계 19위로 길다. 또 관광 대국인 이탈리아는 해외에서 4,370만 명이 방문하여 세계 에서 5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나라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보여지듯(44곳)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오랜 전 통을 지니고 있다.

2 스위스(Switzerland)



○ 기본현황

- 중앙유럽에 있는 연방 공화국이며, 내륙국이다. 수도는 법률상으로는 없으나, 베른이 사실상 수도 기능을 하고 있으며, 최대 도시는 취리히이다.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영세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서, 동서로 뻗은 알프스산맥, 그 북서부에서 북동으로부터 남서로 뻗은 쥐라산맥, 그리고 두 산맥 사이에 중앙 고원, 이렇게 세 지대로 대별된다. 알프스의 산릉에서 여러 깊은 계곡이 파여 심플론, 고트하르트 고개, 생 베르나르 등의 고개와 레만호, 뇌샤텔호, 보덴호 등의 호수가 있다.

○ 사회복지

- 스위스는 일찍부터 사회권 사상을 뿌리로 하여 스위스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이며, 국민개보험이 실시되고 노년, 과부 보험 및 고용보험법이 연방법으로 정해졌다.

2 독일(Germany)



○ 기본현황

- 중앙유럽에 위치한 국가이다. 인구는 2023년 기준 84,607,016명으로 유럽[h]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유럽 연합(EU)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독일은 북쪽으로 발트해, 북해와 남쪽으로 알프스 산맥의 사이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덴마크, 동쪽으로 폴란드와 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서쪽으로는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와 접해 있다. 독일의 영토는 357,021km²이며, 기후는 주로 온대 기후를 보인다. 공용어는 독일어이고, 그 외에 소수 민족들의 언어인 러시아어, 영어, 소르브어, 덴마크어, 프리지아어 등도 쓰인다. 독일의 수도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베를린이고, 주요 금융 중심지는 프랑크푸르트, 가장 넓은 도시권은 루르이다.

○ 경제

- 독일은 강력한 경제를 가진 강대국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명목 GDP로 세계 3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5위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 산업, 과학과 기술 분야의 글로벌 강국으로서 세계 3위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선진국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와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독일은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유럽 평의회(CoE), G7,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다. 또한 독일은 세 번째로 많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 교통·에너지

- 유럽에 위치한 독일은 유럽 대륙의 교통 허브로, 도로망이 유럽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다. 독일에서 고속도로(Autobahn)는 일부 차량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방적으로 규정하는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터시티익스프레스(ICE) 열차 노선은 최대 300km/h(190

mph)의 속도로 독일의 주요 도시를 포함해 주변국들의 목적지까지 연결되어 있다. 독일에서 가장 큰 공항은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공항과 뮌헨 공항이며, 함부르크 항구는 세계에서 20번째로 큰 화물 항구이다.

- 2019년에 독일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국가였다. 독일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2023년에 단계적으로 폐쇄되었다. 독일은 전체 전력 수요를 40%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해 충족하여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의 '선두주자'로 여겨졌다. 독일은 생물 다양성, 저배출, 수자원 보호를 촉진하는 파리 협정 등의 여러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가정 내 재활용률은 약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18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 연합에서 9번째로 높았으나,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은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을 포함하여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정 받고 있다.

VI

출장일정(안)

일차 (요일)	방문지역	주요일정	벤치마킹 사항	비고
1일차 (7/4.목)	이탈리아	○ 인천 → 로마 (아시아나 직항)		
2일차 (7/5.금)	(이탈리아) 로마	○ [공식방문] 미팅 이탈리아 전력청(GES) 회의	- REC 개요, 지침 규제, 구축 및 운영 지원 방안 - REC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적 사항	
		로마 → 토리노 (열차)		
3일차 (7/6.토)	(이탈리아) 쿠네오	토리노 → 쿠네오(열차)		
		○ [공식방문] 미팅 CONCERTI 재생 에너지 커뮤니티 미팅	- REC 회원 회사, 시장 및 공급자와 회의 - REC 관리 디지털 플랫폼 (Fabbrica Digitale)	
4일차 (7/7.일)	(이탈리아) 토리노	○ [공식방문] 없음	휴일로 인한 기관 방문 불가	
5일차 (7/8.월)	(이탈리아) 토리노	○ [공식방문] 미팅 토리노 공대 에너지 센터 회의	- 인재육성, 기술지원, 구성원 참여방법	
		○ [공식방문] 미팅 토리노 상공회의소 회의	- 기업의 참여 방법과 역할, 현황, 사례	
6일차 (7/9.화)	(스위스) 취리히	토리노 → 취리히 (항공)		
		○ [공식방문] 견학 그린시티 견학 취리히 시청사 방문	스위스 최초 “2000 Watt Areal” 인증 지구	
7일차 (7/10.수)	(스위스) 루체른	○ [공식방문] 견학 에너지슈바이츠	루체른시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8일차 (7/11.목)	(독일) 프라이브루크	루체른 → 프라이브루크 (자동차)		
		○ [공식방문] 견학 보봉마을 Innovation Academy 프라이브루크 신청사	우수환경정책 사례를 견학 세계 최초의 순 배출량 제로(Net-Zero) 공공건물	
9일차 (7/12.금)	(스위스) 취리히	○ 프라이브루크 → 취리히		
		○ 취리히 → 인천		
10일차 (7/13.토)	귀국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VII

출장단 구성

○ 구성인원 : 7명(의원 1, 활동가 5)

연번	직책	성명	영문성명	성별	비고
1	의원	최지은	CHOI JI EUN	여	복지환경위원회
2	센터장	이승한		남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3	센터장	최우순		여	전주시에너지센터
4	활동가	이현세		남	전주시에너지센터
5	활동가	김준희		남	전주시지속가능협의회
6	활동가	정선숙		여	시민행동21

VIII

사전 준비과정

구 테	분 마	일시	주요내용 관련기관/전문가	비고
제1차	사전 준비 간담회	`24.4.26(월)14:00 전주시에너지센터	에너지전환 정책연구 출장 계획서 공유	전주시에너지센터 전주지속협 전주시정연구원
제2차	사전간담회	`24.5.10(금)16:00 전주시에너지센터	탄소중립도시 저자 특강 강사 : 김정곤박사	사전 스터디
제3차	사전간담회	`24.5.13(월)13:00 전주시에너지센터	세부일정 조율	
제4차	사전간담회	`24.5.20(월)14:00 전주시에너지센터	연수계획 최종 확정	
제5차	사전간담회	`24.6.03(월)14:00 전주시에너지센터	방문기관사전학습	
제6차	사전견학	`24.6.4.(화)~6.6(목) 제주도	국내 사전 견학	우도 오봉리 →산자부재생에너지 기반 지원마을 첨단로 에너지 융합센터 →태양에너지저장시설 (전기차페배터리활용)